
 통일부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담당과장	서한교 (02-901-7160)	담당자	남윤철 주무관(02-901-7166)		

통일교육원, 『손안의 통일』 시리즈 6권~10권 발간
- 평화·통일의 길에 함께할 좋은 여행서 -

- 통일교육원은 누구나 쉽게 평화·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손안의 통일』 시리즈 6권~10권을 12월 30일 발간합니다.
 - 『손안의 통일』 시리즈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북한을 바로 알고, 독자 스스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 『손안의 통일』 시리즈 1-5권은 작년 12월 발간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북한 뉴스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문화유적 △우리 사회 통일여론 지형 △근현대사 △금강산을 주제로, 전문가의 글과 사진 자료 및 삽화를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 ‘북한 뉴스 바로보기’는 △북한 관련 오보 사례·배경 △허위·왜곡 정보 판별법 제시 등을 통해 독자들이 정보사회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빠와 딸, DMZ를 걷다’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문화유산 및 유적지를 소개하여 독자들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2018-2019)의 결과에서 나타난 △북한을 보는 시각 △통일 인식 등 우리 사회의 통일·북한 관련 인식 지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는 근현대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인물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남북 간 바람직한 공존과 번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통일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은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는 금강산을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린 금강산 소재 미술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행하여 통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손안의 통일』 다섯 권(권당 1,100부)은 12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통일 관련 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됩니다.
 - 통일교육원은 이 책을 통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평화·통일문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붙임 1. 『손안의 통일』 시리즈 소개자료.
2. 『손안의 통일』 6~10권 저자 소개. 끝.



【붙임1】

『손안의 통일』 시리즈 소개자료

순번	표지	소 개
6권		<p>북한 뉴스 바로 보기 -인포데믹 시대에 북한 뉴스 읽기-</p> <p>지은이: 구분권(기자) 형 태: 184면 / B6(120*188mm) 연장정 발행일: 2020.12.30</p>
7권		<p>아빠와 딸, DMZ를 건다 - 비무장 지대의 우리 역사를 찾아서 -</p> <p>지은이: 최동군(작가) 형 태: 208면 / B6(120*188mm) 연장정 발행일: 2020.12.30</p>
8권		<p>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론으로 읽는 북한과 통일 -</p> <p>지은이: 김춘석·정한울(한국리서치), 이태호(참여연대) 임현조(범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 형 태: 184면 / B6(120*188mm) 연장정 발행일: 2020.12.30</p>
9권		<p>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 - 고종부터 신채호까지 가상 역사 토론 -</p> <p>지은이: 함규진(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형 태: 152면 / B6(120*188mm) 연장정 발행일: 2020.12.30</p>
10권		<p>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 화폭 속 화가의 발자취를 따라 -</p> <p>지은이: 박계리(통일교육원 교수) 형 태: 248면 / B6(120*188mm) 연장정 발행일: 2020.12.30</p>

【붙임2】

『손안의 통일』 6~10권 저자 소개

순번	저 자	소 개
6권	구분권	오랫동안 취재·보도를 해온 현직 신문 기자이자, 언론학과 디지털 사회 변화를 연구하며 저술·강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현장 기반 연구자이다. 1990년부터 『한겨레』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 미래교육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 교수를 지냈다.
7권	최동군	1991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문화와 역사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시민이었다. 1997년 처음 참여한 경주 문화 답사에서 큰 감명을 받고, 그 후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독학으로 공부했다. 평소 <배워서 남 준다>라는 소신으로 많은 문화 답사 강좌 및 모임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를 전파하고 있다.
8권	김춘석	현재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 겸 공론화센터장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 KBS 선거보도 자문위원 등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와 보도 및 방송사 출구조사 등과 관련한 현업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겸 평화군축센터 소장. 300여개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전국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1995년 참여연대 상근 활동가로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래,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과 정치개혁 운동 등 주로 권력남용 방지와 평화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
	임현조	2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이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 민중당, 민주노동당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전향하여, 2005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을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 2010년 박세일교수와 함께 선진통일연합을 창립하여 공동대표, 사무총장을 역임 등을 하였다.
	정한울	현재는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리서치 디자이너이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선거정치, 대외안보인식, 거버넌스 분야 여론연구를 진행해왔다. (재)동아시아연구원(EAI) 사무국장, (재)여시재 연구조정팀장 등을 역임했다.
9권	함규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약용의 정치 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0권	박계리	2003년 「김정일주의 미술론과 북한미술의 변화」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 평론 부문에 당선된 이후 꾸준히 북한 미술 관련 논문을 발표해 왔다.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큐레이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홍익대학교 융합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 미술가들의 정체성과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